

#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에 관한 연구\*

- 상황설정 및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

## A Study of the Basic Factors of Bibliographic Tool for the Bibliotherapy

한 윤 옥(Yoon-Ok Han)\*\*

### 목 차

- |                      |                      |
|----------------------|----------------------|
| 1. 서론                | 3. 상황의 분류기준과 특성      |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1 생물학적 요소에 따른 분류   |
| 1.2 연구의 방법           | 3.2 공간과 관계요소에 따른 분류  |
| 2. 이론적 배경            | 3.3 독자적인 증상에 따른 분류   |
| 2.1 도서관과 독서치료의 필요성   | 4. 상황의 분류체계와 분류지의 전개 |
| 2.2 독서치료의 연구현황과 발전방향 | 5. 결론 및 제언           |
| 2.3 독서치료용 독서목록 분석    |                      |

### 초 록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정신적 상처를 입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도서관적 봉사방법으로 정선된 책을 통한 정신치료가 있는데 이것을 독서치료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적어 그다지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도서관에서의 봉사도 활발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것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에 대한 도서관 봉사의 가장 기본적 도구인 상황별독서목록을 만들기 위하여 독서치료 대상자의 상황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제1차적 기준은 생물학적 특성으로서의 성과 연령이고 2차적 기준은 가정, 학교, 직장 등 공간적 특성, 3차적 기준은 인간관계이다.

###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ist librarians in developing a bibliographic tool for the bibliotherapy. Bibliotherapy is a form of psychotherapy in which carefully selected reading materials are used to assist a subject in solving personal problems or for other therapeutic purposes. However, bibliotherapy has rarely been either studied or practiced in Korea. For a bibliographic tool which is called 'situational bibliography', a client situation has to be classified by the factors of biological, place and personal relations, type of stress or symptoms. This study, in this regard, is examined related recent researches in the field of psychology or psychoanalysis. Main conclusions made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classify a client situation in a bibliographic tool are sex, age, home background, personal relations and mental health issues.

키워드: 독서, 독서치료, 독서목록, 상황별 독서목록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기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hanyoon@chollian.net)

논문접수일자 2003년 2월 19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3월 10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 현장에서 독서치료를 연구하고 봉사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독서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서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도서관 자료의 정리를 위하여 분류법이나 목록규정이 마련되는 것처럼 사서들이 독서치료를 도서관 봉사로 도입하여 프로그램화 시키려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장서를 구성해야 하고, 그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장서구성을 위한 독서치료용 선정도서목록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위한 선정도서목록이나 추천도서목록, 양서목록은 이용자의 지식을 늘려주고 교양을 높여주고 인격을 닦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책의 내용이 좋으면 추천도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서치료를 위한 책은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목적의 책이므로 책의 내용이 좋고 훌륭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보다는 오히려 그 책이 그 사람의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하다.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다소 불량한 내용의 책이라도 그 책의 내용이 그 사람한테 동일화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동반한 감정적 통찰력을 갖게 할 수 있다면 훌륭한 독서치료용 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sup>1)</sup> 그러므

로 독서치료용 도서목록을 만들려면 우선 독서치료 대상자들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그는 어떤 사람이고, 그 상처의 유형이나 병의 증상은 어떠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후 그 상황에 적합한 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독서치료용 도서는 독자의 상황이 우선적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독서치료용 도서목록은 선정도서목록이라기보다는 상황별 도서목록이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즉 독서치료에 쓰일 상황별 도서목록의 기초 작업으로 1) 독서치료 대상자들을 분석하기 위한 요인을 밝히고, 2)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의 공통점과 특성을 밝히고, 3) 독서치료 대상자가 앓는 마음의 병이나 상처의 증상과 유형을 밝히고, 4) 이들 요소를 정리하여 독서치료를 위한 서지작성의 기초 자료가 될 상황에 대한 분류기준과 체계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되겠지만, 2차적으로는 사서들이 독서치료 대상자와 상담을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의 방법

제일 먼저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도서목록을 작성할 때 필요한 기초적 요건으로서 독서치료 대상자를 분석하기 위한 요소를 추출

1) 독서치료는 독서치료 대상자와 작품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일화(identification), 카타르시스(catharsis), 통찰(insight)의 3단계에 걸친 기본적인 원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한다. 이것을 토대로 제 2단계에서는 독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상황이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나 성장배경에 기인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들의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위치 등 문제발생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분류기준을 제시한다. 3단계에서는 그들로부터 파생되는 현상이나 증상을 중심으로 하위 전개를 위한 분류기준 및 분류지를 제시한다.

독서치료 대상자의 정신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이론서를 참고할 것이며, 상황설정을 위한 분류체계의 기초를 잡기 위하여 기존의 독서치료용 독서목록에서 제시한 상황들과 각종 상담소에서 나온 상담사례집을 참고한다. 마음의 상처와 정신질환의 증상은 신경정신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질환 진단 분류 체계를 참고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가. 독서치료 대상자의 생물학적 요소 분석 (성별, 연령, 발달과업에 따른 분류 등)
- 나. 문제발생지와 관계 분석(가정환경을 비롯한 성장환경이나 현재의 사회적 입장에 따른 분류 등)
- 다. 마음의 병과 상처의 유형 및 증상 분석 (정신분석학, 심리학 등에서 제시하는 마음의 병이나 상처의 유형별 분류 등)

## 2. 이론적 배경

### 2. 1 도서관과 독서치료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짧은 기간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산업발달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성숙이 함께 동반되지 않은 경제발달로 인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파괴화되는 불균형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경제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정신문화의 공황 속에 갑자기 닥친 외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급격한 사회체제의 변화는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사회적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혼율의 급증과 파괴되는 가정으로 인해 상처받는 청소년이 늘고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실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노인 아닌 노인이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전통적 윤리의 붕괴 속에 노인이 방치되고 있고 주부들의 탈선 또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직장을 갖고 일하는 근로자라 해도 더욱 더 심해져 가는 경쟁적 사회 구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문의나 교수까지도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하는 등 한해에 500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의한 자살을 하고 있다. 한 언론매체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소리 없이 확산되는 '사회적 암'<sup>2)</sup>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상처받거나 지쳐가는

2) 조선일보 2002.12.26. A31쪽 - 이 기사에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나 교수 이외에도 대학 휴학생, 주부 등의 자살을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5%정도가 우울증 환자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1999년에 서울대 병원 정신과 조명제 교수팀이 부천시내 중고등학생 2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17.4%, 여학생의 20.6%가 심각한 우울증상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사람들 혹은 사회적 부적응자나 우울증 또는 알코올 중독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없는 것일까? 도서관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만 봉사하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기관으로서 존재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도서관적 치료방법이나 봉사방법은 없는 것일까?

도서관은 본래 장서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온 사회적 기관이고, 사람들은 도서관의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 가지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다. 이처럼 사람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책은 인간의 심리나 정신에 작용하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하여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사서와 정신보건전문가들이 함께 진행하는 독서치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Doll은 독서치료를 ‘책의 치유능력’ 혹은 ‘책을 통한 치유’(Beth Doll and Carol Boll, 1997, 6-7)로 아주 간단히 정의내리면서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책과 책읽기를 통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도서관 봉사는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기원전 1000년경 고대 그리스의 도시 테베에 있었던 도서관 현판에서는 “영혼의 치유장소” 라는 글이 발견되었으며,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럽의 거의 모든 정신병원에 도서관이 설치되고, 미국에서는 정신과의사와 사서가 한 팀을 이루어 심리적 문제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가 행해

지고 있었다(유혜숙 1997, 5-7). 다만 정신분석학이나 심리상담 혹은 심리치료 등이 보편화되지 못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활발하게 도서관 현장에 적용되거나 학계에서 연구되지 않았을 뿐인데 최근에 그 상황이 바뀌고 있다. 즉 독서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풍부한 자원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 분야에서 개발되고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만약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독서치료를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도서관과 사서직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의 지식과 경험을 담은 책이나 문헌자료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동시키면 사서는 정보매개자로서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간호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 영역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서의 이런 역할을 통해 사서직은 지역사회나 학교의 환경에서 임상성을 띠는 직업적 무게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영역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김정근 2002, i). 또 독서요법에 사용되는 책 한권 한권은 도서관 장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도서관장서의 임상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 2. 2 독서치료의 연구현황과 발전방향

독서치료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책, 문학을 의미하는 *biblion*과 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로 돕다, 병을 고쳐주다를 의미하는 *therapeia*가 합쳐진 것으로서, Samuel McChord Crothers가 1916년에 〈Atlantic Monthly〉의 글에서 처음 사용하였다(윤정옥 1998, 48). 현재 독서치료, 독서요법, 독서치유, 독서지도, 독서교육, 독서상담, 독서클리닉 등 용어가 혼재하고 있지만 이들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독서교육, 독서지도는 어떻게 하면 책을 즐겁게 읽고 책을 좋아하고 읽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독자의 독서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하여 좋은 책을 선정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책을 읽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독서클리닉은 읽기 부진아(정상아가 해당학년의 읽기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나 장애아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독서치료 또는 독서치유는 읽기 부진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서장애, 혹은 성장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이 오히려 독서치료의 적극적 대상이 된다. 실제 치료가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책을 좋아하고 잘 읽는 사람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독서요법은 일본에서 1937년부터 *bibliotherapy*를 독서요법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독서치료와 독서치유, 독서요법은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한다(김현희 2001, 20-22).

이처럼 사용되는 용어가 혼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도 그 응용분야나 적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록된 사전이나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우선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처음 실렸다고 하는 1941년판 〈Doland's Illustrated Medical Dictionary〉의 것을 보면 “신경정신병의 치료를 위해 도서

를 선정하고 그 도서를 읽는 행위”라고 하였으며, Tews는 “독서치료란 치료자가 선정된 독서 자료에 의하여 환자의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992년판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에서는 “주의깊게 선택한 독서자료를 가지고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보조적인 심리치료”라고 하였다(유혜숙 1997, 8-9 / 윤정옥 1998, 48-49). Doll & Doll은 선택된 독서자료에 내재된 생각이 독자의 정신적 혹은 심리적 질병에 치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으로, Hart는 치료자와 도서관 사서가 읽으라고 지시한 책을 참여자가 읽음으로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서치료에 대한 정의는 심리치료에서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교사와 상담자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시작, 독서치료가 문학작품을 통하여 참여자와 치료자의 치료적 상호작용을 유발시킴으로서 참여자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독서치료에 대한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20세기 들어서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에나 이루어졌다(김현희 2001, 15-19).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그다지 활발한 연구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지극히 적다.<sup>3)</sup> 오히려 최근 들어 심리학 혹은 유아교육 분야 등에서 어린이의 장애나 문제 행동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독서치료가 연구되

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들 분야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예술치료 등이 많이 소개되어 실제 치료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상의 치료방법에 이어 문학 자료를 매개체로 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독서치료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sup>4)</sup> 의외로 우리 문헌정보학계나 도서관 현장에서는 작게는 한 권의 책이요 크게는 도서관장서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치유능력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인간에게 작용할 수 있는 책의 힘에 대한 인식도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다시 말

하면 정보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는 연구 활동에 대한 도서관 봉사 이론은 비교적 많이 개발한 반면에 삶의 과정에 부딪치면서 심리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신적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인간적 성숙을 꾀하여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의 독서치료나 도서관 봉사에 대한 임상적 연구나 강좌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와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sup>5)</sup>에서 2001년 이후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 김 정근

- 
- 3)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나온 이 분야의 연구논문은 아래와 같다.
- 장귀녀. 1985.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변우열. 1997. 비행청소년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 『도서관학논집』, 26: 131-168.
  - 유혜숙. 1998. 『노인의 우울증 해소를 위한 독서요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윤정옥. 1998. 독서요법의 이론과 적용. 『도서관』, 53(1): 47-64.
  - 이희정. 2001. 『독서요법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정립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 2002. 책은 치유하는 힘이 있는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 학기논고집.
  - 송영임. 2003. 정신보건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연구 -독서치료의 적용과 관련하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4) 대표적으로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에 소속된 독서치료연구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본 연구회는 2001년 7월에 '독서치료의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본 연구회의 회원 12명이 3년간 공부한 결과를 모아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독서치료/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독서치료연구회 편. 서울: 학지사, 2001).
- 5) 2001년1학기에 필자가 맡았던 <교육자료분류목록> 강좌에서 학생들의 양해 아래 독서치료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사서교사와 공공도서관 사서가 대부분이었던 이 강좌의 학기말 레포트에서 학생들은 도서관과 독서요법의 관련성 및 사서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중 몇 학생의 글을 인용한다. "한 학기동안 독서치유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독서치료가 가능하다는 전체화에 마음의 상처가 어디에서 오는지, 상처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상처는 과연 치료될 수 있는지, 치료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많은 생각과 토의가 있었다. 나는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독서치유가 가능하다는 전체를 두 가지 이유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첫째는 습관적으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으로 접근시킬 수 있을까? ..... 두 번째로 이미 상처가 깊어 병증이 생긴 사람들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독서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중략..... "..... 도서관은 관중을 막론하고 책을 도구로 해당 이용자와 만나게 된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정서와 정신건강에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는 지난 IMF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 때 아닌 실적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때 그 많은 실적자들은 관악산으로만 몰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평생토록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공공도서관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의 변화에 동떨어져 본의 아니게 실적을 하였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기만 했다. 그들의 이런 불안한 정서는 개인 생활은 물론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으며, 도서관은

교수의 지도아래 대학원 학생들 몇 명이 <책 읽기를 통한 정신치료연구실>이라고 하는 연구모임을 만들고, 그간의 토의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2001년 8월에 문헌정보학계 학자 몇 명이 모여 독서치료 관련 연구모임을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활발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송영임 2003, 58).

### 2. 3 독서치료용 도서목록 분석

독서치료의 역사가 오래된 서양에서는 독서

치료를 위한 많은 연구문헌을 비롯하여 실제 독서치료 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 독서치료용 도서목록<sup>6)</sup>이 많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하다가 책을 낸 이 영애의 '책읽기를 통한 치유' 등을 비롯하여 소량의 도서자료 목록이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헌들을 참고하여 국내외의 문헌에서 제시한 독서치료 대상자의 상황이나 범주<sup>7)</sup>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① 생활의 대처, 죽음, 이질성, 이혼, 가난,

사회의 요구에 앞서 자연스러운 변화로 그들을 위한 재취업 가이드코너를 설치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도 마련하고, 도서관장서 구입 시에도 그들의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내용들에 비중을 높여 선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예는 공공도서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픔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더 나아가 독서자료의 제공으로 독서를 통한 치유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독서치유 과정에서 사서는 이용자의 관찰에서부터 장서구성과 제공, 그리고 봉사전반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를 진단하고 그 치료에 적합한 독서자료를 제공하고 독서과정에 조언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서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사서는 어떤 중세를 진단하는데 생길 수 있는 위험 소지, 즉 사서는 정신과 전문의나 심리상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여 조심성있게 접근한다면 그 치유과정에서는 가장 전문가다운 독서치료자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독서치유의 가능성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본다. ...."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사서교육과정 1학기 성경희)

"..... 독서치료는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998년부터는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생들의 생활지도나 진로선택에 전문 상담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사서교사들이 전문 상담교사와 협력하여 독서치료를 시행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사서들이 독서치료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관중 및 특성에 맞는 목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독서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일의 연장선을 생각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상담교사나 생활지도교사, 담임 등과 상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열정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사서가 독서치료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삶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독서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심리학과 교육학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다. 일반교사들처럼 상담교사 연수를 통해서 혹은 대학원에서 상담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사서들은 아이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성공적인 치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용기와 책임을 치료관계에 가져와야 한다." (3학기생 송봉익)

6) John T. Pardeck and Jean A. Pardeck, 1993. *Bibliotherapy - A clinical approach for helping children*, Switzerland: Gordon and Breach Science.

John T. Pardeck, 1993. *Using bibliotherapy in clinical practice - A guide to self-help books*. Westport: Greenwood.

John T. Pardeck, 1998. *Using books i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 A guide to bibliotherapy*. New York: Haworth.

Mildred T. Moody and Hilda K. Limper, 1971. *Bibliotherapy - Methods and material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Marilyn Coleman and Lawrence H. Ganong, 1988. *Bibliotherapy with stepchildren*.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Janice M. Joshua and Donna DiMenna, 2000. *Read two books and let's talk next week - Using biblio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 Sons.

관계, 자아관

② 가족관계, 책임, 이기심 성격과 개성, 자율성, 용기, 새로운 가정과 친구들에 대한 적응, 병과 신체장애의 인정, 입양아, 두려움, 타인의 용납, 자아의 용납, 신체적 특성, 죽음

③ 외모(체격, 장애, 성장 및 발달), 감정 및 성격(수줍음, 자아개념, 남을 돌보기, 행동, 책임, 거짓말, 두려움, 협동, 우정, 죽음), 가족관계(가정 내 문제, 별거와 이혼, 세대 차, 사랑과 관심), 사회경제적 문제(인종 및 민족관계, 전쟁과 평화, 이사, 부적응, 마약과 알코올)

④ 역할모델, 복합가정, 별거와 이혼, 아동학대, 대리보육, 입양, 아동기의 두려움

⑤ 약물중독, 변화와 대응, 폭력적인 가정과 역기능 가정, 부모 역할, 개인 성장, 심각한 질병, 사회관계, 이혼과 복합가정

⑥ 이혼과 재혼, 역기능 가정, 부모역할, 자기개발, 심각한 질병, 약물의존장애

⑦ 자기 수용, 인간관계, 대인관계, 대화법, 상담 심리학, 내적 치유, 우울증, 성인아이,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증, 혼전 상담, 배우자 선택, 행복한 가정생활, 성문제, 이혼, 부모의 역할, 자녀교육, 심신장애아를 둔 부모 및 기타

⑧ 자기에성 성격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성폭력, 시설 아동들, 반사회성 성격장애자, 자폐아, 우울증, 스트레스

독서치료용 목록에 나타난 위의 항목들과 비슷한 성격의 분류범주를 청소년상담원이나 여성의 전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기

관에서의 상담내용은 물론 독서치료와는 다르지만 결국 여성 혹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독서치료로 연결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여성의 전화와 청소년상담원에서의 2001년 상담 통계에 나타난 주제별 항목구분을 살펴보았다.

① 가정폭력(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성폭력(강간, 성추행), 외도, 부부갈등, 시집갈등, 미혼여성, 법률상담, 주부 자신의 문제, 직장내 폭언폭행

② 성폭력, 가정폭력, 미혼모, 기출유혹, 윤락, 저소득 모자, 취업, 이혼

③ 가정, 학습, 진로, 취업, 교우, 이성, 성, 비행, 약물남용, 성격, 정신건강, 여가활동, 제도개선

④ 가정, 친구, 이성, 대인관계, 학업, 진로 및 취업, 성격 및 정신건강, 성, 비행 및 약물문제

이상의 것을 분석하여 보면 주제분류를 위하여 일관된 기준이나 특성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서목록의 주제구분이나 상담내용의 항목구분이 모두 대상자를 성 혹은 연령대로 구분한 후에 작업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또 독서치료용 도서목록에 나타난 주제구분과 상담내용을 구분한 항목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는 이혼, 재혼, 별거 등 부부간의 문제와 이로 인한 아이들의 문제, 가족간의 관계

7) 송영임이 그녀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국내외의 선행문헌을 참고하여 제시한 상황을 연구자가 주제명만 뽑아 나열하였다. ①부터 ⑧의 문헌은 각각 독립된 문헌으로 자세한 사항은 '정신보건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연구' 79-81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8) 주제를 뽑아 낸 자료의 서명을 보면(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Bibliotherapy: A Clinical Approach for Helping Children> 등이고, 여성의 전화, 청소년상담원 등이 그렇다.



등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으며, 성과 관련된 문제도 역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할 문제, 건강과 질병문제,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문제 등도 거의 모든 문헌에서 취급되고 있다. 다만 독서치료용 목록에 나타난 구분에서는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적인 항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해 상담내용의 구분에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정신건강으로 표현하고 있다.

### 3. 상황의 분류기준과 특성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상황별 독서목록을 작성한 한 연구팀은 상황에 대한 정의를 “어떤 사람이 책을 읽거나 읽고자 할 때 처해 있는 정신 및 신체적 상태나 조건 혹은 사회적인 입장이나 여건”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한윤옥 외 1999, 233-236).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독자들이 인생행로에서 마주치게 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으면서 충격을 받거나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혹은 독자가 처해 있는 시간이나 장소적 여건, 그의 어떤 행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입지 등 그가 처한 입장에서 그것과 관련된 독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독서상황으로 보고, 그 상황에서 해결책을 암시한다거나 혹은 독자의 감정과 입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서들을 상황별 독서목록의 선정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은 독서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독서치료의 대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단순히 책을 읽고 싶은 상태보다는 심각한 괴로움이나 마음의 상처가 동반되어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그 상처의 유형이나 상처의 유발요인들은 대상자가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대상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생물학적 요소를 분석하고, 다시 상처나 질환이 발생한 장소와 인간관계를 분석하고, 그 후 독서치료의 대상자가 갖고 있는 상처들의 유형이나 증상을 분석하도록 한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 대상은 정신과에서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적어도 독서치료의 대상자로 도서관의 사서가 지목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일탈행위를 보이는 경우와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신경증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 병이라고는 하지만 우울증의 초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

#### 3.1 생물학적 요소에 따른 분류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은 독서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정신 및 신체적 상태나 조건 혹은 사회적인 입장이나 여건에 맞는 책들의 목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별 독서목록을 만들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고, 이와 함께 독서치료가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여 대상자의 독서흥미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독서흥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성과 연령이라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독서흥미는 초등학교 저학

년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10세경부터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며, 특히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한다(한윤옥 1989, 7-8).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는 성 정체성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여지가 많은 구조로서 특히 여성이 희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독일 여성운동의 대모격인 Alice Schwarzer는 일찍이 여자들이 돈의 많고 적음, 피부색, 교육정도와 상관없이 사랑과 성, 남성과 폭력,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전 지구적으로 공유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여성운동이 문화현상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서구사회에서조차 사랑과 자유, 연민과 욕망, 가정과 직장 중 한 쪽만을 택해야 하는 심각한 갈등에서 여자들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부장 사회가 유도하는 보편적 현상일 밖에 없다(알리스 슈바르처 2002, 8-10)는 정치적 소신을 펴면서 성 정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여자들의 문제를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그녀는 실증적 사례들 뒤에 결국 이 모든 여자들의 문제가 남자와 여자의 아주 작은 생물학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일 뿐인데 이러한 남녀차별이 대물림을 하는 사회제도로 변질이 되어 남존여비적인 형식으로 강요되는 아주 큰 문화적 차이를 가져왔다고 한다(알리스 슈바르처 2002, 253). 반면에 남자들에게 강요되는 사회적 압박도 만만치 않아서 남자로서의 성 정체성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는 피해자였던 남성이 집으로 돌아오면 가해자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밖에서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하고 즐겁지 않은, 곧

이 말하자면 사회에서의 피해자 처지인 남성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갑자기 폭군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의 가족들도 피해자이지만 아버지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또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은 남성은 끊임없는 압력을 받는다.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력과 밑에서 치받고 올라오는 압력에 시달린다. 날이 갈수록 책임은 무거워지지만 그 중압감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많은 남성들에게 현대 가정은 예전 가정처럼 반드시 휴식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벌이 하는 주부들이 남편보다 늦게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 권리만 주장하며 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드는 가정도 있을지 모른다. 아버지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홀로 지방근무를 하는 사람도 많고 가족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짐짝 취급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기위하여 술을 마시다가 결국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되거나 마음의 병에 걸려 불면, 초조, 식욕부진, 우울, 불안 따위의 증상이 생기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오하라 겐지로 1999, 229-231). 이처럼 남자 혹은 여자라고 하는 생물학적 사실은 남자 혹은 여자라는 단순한 문제로 그치지 않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구조 때문에 남자답기 위한 혹은 여자이기 때문에 등의 성 정체성에서 오는 압박요인으로 인간에게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압박에 제대로 적응하거나 사회적인 인식에 부응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어 결국 마음의 병을 앓게 되거나 상처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게 되는 상처의 유형이나 마음의 병의 증상은 사회가 요구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감기나 암 등의 신체적인 질병과는 달리 남자와 여자 간에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별은 독서치료 대상자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상황별 독서목록에 나타날 상황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인간은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양적 변화와 심리학적 측면에서 구조적 기능화를 가져오는 질적 변화를 연령에 따라 겪어내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발달이라고 하며, 이러한 발달은 발생(정신 및 생물학적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생존의 끝(죽음, 쇠퇴)으로 계속되면서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발달은 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양적 및 질적 변화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동기로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점진성, 상승성과 함께 청년기 이후 노년기에 이르는 하강성도 포괄하여 발달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간의 발달단계에 대한 구분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Hurlock은 태아기(수정부터 출생), 유아기(출생부터 2세), 아동기(2세~11세), 청년기(11, 12세~21세), 성인기(22~40세), 중년기(40~65세), 노년기(65세 이상~사망)와 같이 구분한다(김경희 1986, 3-17). 이것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1> 발달단계 이론의 비교

단계	연령범위	특징 및 발달과업	인지발달 Piaget	심리성발달 Freud	심리 사회성 발달 Erikson	도덕성 발달 Kohlberg
출생 전기	임신~분만	신체발달				
신생아기 및 영아기	분만~24개월	신체 이동 기본 언어 획득 사회적 애착	감각 운동기	구강기 항문기	신뢰 대 불신	전도덕기
유아기	2년~6년	언어능력 숙달 성차 발달 집단유회 취학준비 완료	전조작기	남근기 외디프스킵 프렉스	자율성 대 의심 주도성 대 죄책감	복종과 처벌 (제1단계) 상호성 (제2단계)
아동기	6년~12년	인지발달이 성인 수준으로 발달 협동놀이	구체적 조작기	잠복기	근면성 대 열등감	착한아이 지향 (제3단계)
청년기	12년~20년	사춘기를 시작, 성숙이 끝남 최고수준의 인지 획득 부모로부터의 독립 이성관계 형성	형식적 조작기	성기기	정체감 대 역할혼미	법과 질서 (제4단계)
성년기	20년~45년	직업선택과 가족형성			친근성 대 독립감	사회 계약 (제5단계)
장년기	45년~65년	직위가 가장 높아짐 자기 평가 자녀 출가로 인한 '공허감' 위기은퇴			생산성 대 침체성	도덕률(제6단계)
노년기	65년~사망	가족과 업적을 즐김 죽음에의 공포극복 건강 악화			자아통일 대 절망감	

출처 : 김경희(1986), 아동심리학, 57쪽

발달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사람의 정신장애를 어떤 특정한 단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아 특정한 단계의 발달 과제를 성취하는데 곤란을 일으켜 발달과제의 성취가 늦어지거나 혹은 그로부터 퇴행함으로써 그 이후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35-36). 따라서 발달단계별 과업을 제대로 이루었는지의 여부는 사람의 정신장애와 중요한 관계를 갖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독서치료 대상자를 분석하거나 독서치료에서 고려해야할 우선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의과대학 생 교육을 위한 신경정신과학 교과서<sup>9)</sup>를 엮어 내면서 위에서 살펴 본 인간의 발달단계에 대한 여러 구분 중에 소아 청소년기를 묶고, 노인정신의학을 독립시켜서 각각 제23장과 제24장에 나누어 기술하였다. 물론 소아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와 과업은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매우 세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묶은 것은 정신의학 차원에서 함께 기술해도 좋을 만큼의 합당한 분류 논리 즉 정신적 문제가 같은 영향조건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방안이나 증상을 함께 기술해도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용 상황별 독서목록을 만들 때 이러한 구분을 따라 소아 청소년기를 구분하기 보다는 함께 묶어서 이 시기에 해당될 수 있는 발달과업을 논의하고, 노년기 역시 앞의 성년기나 장년기와는 다른 발달기적 특성이 있으므로 독립시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성년기와 장년기는 위의 <표 1>에 따르면 20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대로 직업을 선택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다가 은퇴와 새로운 세대의 가족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인생의 과정에서 인간 개체별로 볼 때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면서도 이루어지는 활동의 내용은 출발과 유지라는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할 것이다. 즉 성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한 세대의 가정적 출발과 직업선택에 의한 사회적 출발이 있고, 장년기에는 그 가정을 유지하고 직업상의 발전을 꾀하는 차이가 있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환경적 조건은 같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정신의학 차원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성 있는 증상들을 이 시기의 이와 같은 상황조건 아래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기적 특성이 있는 소아 청소년기와 노년기만 분리해서 정신의학 분야의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년기와 장년기는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영 유아기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이 만 7세이므로 글을 읽지 못하는 연령 대에 속한다고 보고 독서치료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 결과적으로 독서치료 대상자의 연령과 발달과업을 기준으로 하여 소아 및 청소년기(6, 7세~20세), 성년기 및 장년기(20세~65세), 노년기(65세 이후)로 분류할 수 있다.

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1998), 신경정신과학, 서울: 하나의학사.

### 3. 2 공간과 관계요소에 따른 분류

보다 나은 세상과 삶에 대한 실천적인 욕심이라는 측면에서 인문학을 하는 새로운 부류를 인문좌파라고 부르고 싶다는 김영민은 산업화를 겪은 이후 특히 여성들은 가족에서 나오는 상처, 남자 만나는 상처로 수많은 상처의 덩어리가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돈이나 빈곤이 아닌 관계의 문제인 만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관계에 대한 인문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효원 2002, 113-114).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곳은 인간 조직사회로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부터 시작하여 학교, 직장 등이다. 가정에서의 가족관계가 가장 기본이 될 것이며, 가정 밖에서는 연령 대에 따라 학교와 직장으로 바뀔 것이다. 이때 만약 가정과 직장 또는 학교에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내부적 스트레스(stressor)<sup>10)</sup>를 받게 되고, 불쾌스트레스(distress)<sup>11)</sup>를 유발하게 되어(김지혁 2001, 15-21) 불안한 정서장애가 일어난다. 최근에 정신의학 영역에서 가족정신의학이나 직장정신의학 혹은 학교정신의학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오하라 겐지로 1999, 227-228).

가정에서 갖게 되는 인간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형제관계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관계의 친밀함과 소원함, 또는 관계의 형성배경과 같은 것은 한 사람의 인성이

나 정신적 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한 사람의 발달과정은 그 사람의 생물학적 요소와 환경 및 경험적 요소가 포함되어서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발달은 날 때부터 주어진 신체적, 생물학적 요소와 그 개체가 처해있는 환경으로부터의 경험, 이 두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얻어지는 심리상, 행동상의 기능적 구조화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발달을 논할 때는 항상 생물학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도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함을 인정하고 두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필수조건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생물학적 요소란 유전, 신체적 장애, 기본적 기질, 뇌 중추신경 발달 등의 개인적 요소를 말하며, 경험적 요소란 육아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 형제 수, 그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여건, 학교 경험 등 환경적인 요소를 의미한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35). 성인들이 아무리 어린 적의 일이나 감정이라고 부인하거나 무시하고 극복하려고 해도 감정의 발달은 그 특성상 어린 시절의 감정을 묻어버리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어린 적의 갈등 경험은 계속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대응방식을 결정하거나 감정적 반응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심리상담치료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최초로 정신적 타격을 입은 때가 언제였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10) 스트레스 상태를 일으키는 인자를 말함.

11) 신체가 수용하기에는 벅찬 스트레스 또는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유해한 스트레스를 말한다. 건강과 인생에 유익한 스트레스는 쾌스트레스(eustress)라고 한다.

노력을 한다(베르벨 바르데츠키 2002, 128-129). 정신과 의사인 W. Missildine도 역시 현재의 행동이나 감정,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인의 내부에 잠재된 어린 시절의 자아를 내재과거아라고 표현하면서 성인의 생활 속에 그대로 남아 계속되는 지난날의 소아적 모습과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위치의 성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한다(W. 휴 미실다인 1995. 15-21). 이렇듯이 어릴 적의 가정환경은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누구나 가정 속에서 가족관계를 맺으면서 자라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의 사별 등으로 고아원 등 특수시설에서 자라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가정이 아니라도 학교 등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서 쉬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가정과 같은 의미의 환경구조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의 분위기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줄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의 여부를 독서치료자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를 다음의 사례에서 미루어볼 수 있다. 기금부족으로 아이들을 충분히 돌보아줄 수 있는 직원이 매우 부족했던 미국 남부의 한 고아원에서 3개월에서 세살에 이르는 아이들 97명을 관찰하고 기록한 르네 스피츠의 기록에 의하면 간호사들이 먹이고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지만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얼러주고 달래고 말을 해주지 못한 상태로 지나면서 정서적 양육결핍으로 1년 후에 27명이 죽었고, 결국 이들 중 단지 21명만 생존하였지만 그들 중의 대부분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한다(김형경 2001, v.1.100-101).

학교는 집단생활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배우

는 장소이고 지적인 학습을 하는 곳이다.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일정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고, 인간적으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는 곳이지만 요즈음의 학교는 많은 학생들에게 불쾌한 스트레스를 주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원인(김지혁 2001, 40-46)은 크게 적응의 문제, 사회생활에서 오는 문제, 학업에서 오는 문제 등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정신적 성장에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과 관계가 곤란해지면 등교거부 등으로 발전할 수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왕따 현상을 일으켜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입학, 전학, 새 학년으로의 진급 등은 심리학적으로 분리불안이나 예기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주위의 기대로 인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오히려 많이 나타내는 학업스트레스 또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성인들이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업무내용이나 환경, 대인관계 등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능력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추세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동료라는 의식보다는 경쟁자라는 의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전산화된 현대의 업무방식에서 컴퓨터 세대가 아닌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업무를 대하는 개인의 성격이 '일중독'을 불러와 삶에서 여유를 잃고 스트레스를 키워가게 되는 현상도 나타난다. 퇴직을 하

게 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자신의 존재가치나 자존심에 손상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김지혁 2001, 36-39). 이와 같은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독서치료 대상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가정, 학교, 직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곳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분류기준의 특성으로 하여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등에 의해 부모관계, 형제관계, 동료관계, 상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원생들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선후배간의 관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정신적 상황들이 상처가 되어 독서치료자의 상황으로 나타날 것이다.

### 3. 3 독자적인 증상에 따른 분류

도서관에서 독서치료를 실시할 때 그 대상자는 일단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마음의 병이나 상처를 갖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적 상황은 그 사람이 앓고 있거나 갖고 있는 마음의 병 혹은 상처가 보여주는 증상에 따라 짐작하게 되고, 그것에 근거하여 책을 권하게 되는 것이 독서치료의 절차이다.

독서치료 대상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나 상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공간과 인간관계에서 파악한 위에서의 분류는 결국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파악하고, 어느 곳인가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분류이다. 그런데 상

처나 마음의 병이 꼭 인간관계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 개인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나 성격에 기인한 상처들인데 이들은 넓게 보면 사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불특정 다수 즉 대중과의 관계에 의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앞의 공간과 관계라고 하는 분류기준에 적용된 특성을 공유한다. 다만 개인적 원인에 근거한 상처나 마음의 병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들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것은 정신의학 분야의 이론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분류해야 할 것이다.

질병상태를 원인이나 구조적 병리에 따라 분류하는 신체의학과는 달리 정신의학에서는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질병의 원인에 관한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신장애를 증상에 근거하여 기술적 분류(descriptive classification)를 한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197-198). 1995년 1월1일부터 국내 보건통계와 의료보험 급여의 공식적 분류로 사용하고 있는 ICD-10의 주요 진단 범주에 따라 정신장애를 구분하면 (1) 증상성을 포함한 기질성 정신장애 (2) 정신활성물질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3)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4) 기분(정동)장애 (5) 신경증성,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 장애 (6)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7) 성인 인격 및 행태장애 (8) 정신지체 (9) 심리적 발달장애 (10) 통상적으로 소아 및 청소년에 발병하는 행태 및 정서장애 (11) 특정 불능의 정신장애 등과 같이 크게 11개 범주로 나누어

진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201-203). 정신과의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인지 또는 독서치료와 같은 전단계적인 치료로 치유가 가능한 정신장애인지는 물론 전문의의 진단을 요하는 것이므로 사서들이 언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한 유형에 속하는 정신장애라도 초기단계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한다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병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종류가 있을 것이다. 진단과 관련하여 명심하여야 할 것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정신과적 문제들이, 특히 1차 진료기관에서는 정신과적으로 심각한 장애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상의 어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의사의 친절한 설명, 적절한 조언이나 격려 또는 따뜻한 안심과 위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과대학 교과서의 설명(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203)은 독서치료에서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정신과적 증상이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의 증상들은 물론 정신의 학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만 독서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애 범주를 선택하여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독서목록의 상황설정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면 정신활성물질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와 신경증성, 스트레스 관련 및 신체형 장애,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에서 신경성 식욕부진과 대식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성기능 장애 등을 들 수 있다.<sup>12)</sup>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축약하여 물질 관련 장애(알코올, 약물 등의 중독을 모두 포함), 신경증(신경증성 장애, 스트레스 포함), 생리적 장애(섭식장애, 성기능 장애, 수면장애 포함)로 나누어 표현하도록 한다.

물질관련 장애 증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과 성인에서의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아편류인 dextromethrophan이 함유된 감기약(러미라 등)의 남용이나 amphetamine의 일종인 필로폰 남용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 불법이 아닌 담배나 알코올의 남용 혹은 의존도 역시 개인과 사회에 건강과 환경 및 범죄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이중에 몇몇 물질들은 내부적으로 인지되는 정신적 상태와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활동, 즉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고, 신경정신과적인 증상들을 야기할 수 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261). 알코올 중독은 특히 술 때문에 일상 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미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를 half man이라고 부른다(오하라 겐지로 2000, 142-143). 무슨 일을 맡기든 반사람 뭇밤에 해내지 못한다는 경멸의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알코올 중독도 병이라고 생각하면 경멸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것은 다른 병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병이 되지 않으므로 모두가 본인 책임이라는 것이 경멸의 이유가 된다. 신경

12) 이들은 기질성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신지체, 심리적 발달장애, 소아 및 청소년에 발병하는 행태 및 정서장애 등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신경증적인 증상이거나 정신병의 범주에 속하긴 하지만 독서치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스성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들을 선택하기 위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외 교과서 내용 및 오하라겐지로, 김지혁, 스캇페, 미실다인 등의 저서를 참고하였으며, 청소년상담원과 여성의 전화 등에서 상담 대상이 된 정신병적 요소가 있는 증상이나 현상들도 참고하였다.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추후 보완과정을 거쳐 증상의 추가 혹은 삭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성 식욕부진증이나 대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는 특히 젊은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현대병이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버릇없고 의존심과 허영심이 많고 자기 싫어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오하라 겐지로 2000, 183-185). 이들 증상은 대인관계에서 생긴 불편함 혹은 대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 등 관계에서 생긴 문제가 원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큰 특징은 본인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경증은 내적인 심리적 갈등이 있거나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무리가 생겨 심리적 긴장이나 증상이 일어나는 인격 변화를 말한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8, 401).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생기는 가벼운 마음의 병일 뿐 정신병은 아니며,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라도 늘 상황에 따라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한다. 신경증인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도 없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일도 없다. 자살이나 등교거부, 출근거부, 가정폭력 따위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정신병처럼 심각한 사태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또 신경증 환자는 몸의 어느 부위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지만 어디에서도 그 호소에 해당하는 병적 증상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불면이나 성적 장애, 열등감 등의 심기증 또는 대인공포, 적면공포, 죄악공포, 고소공포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강박 관념증을 느낀다거나 불안신경증으로 시달림을 받게 된다. 시험 때만 되면 식욕이 사라지고 잠을 자지 못하며, 괴롭고 안절부절 해서 병원에까지 가야 된다(오하라 겐지로 2000, 67-81). 이렇듯 신경증은 우울증과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우울증

이 엄연한 병인데 비해 신경증은 병이라기보다 나쁜 버릇이 들어 일상생활이 원활해지지 않은 것으로 우울증에는 약이 잘 듣지만 신경증은 약보다는 정신요법(심리요법)과 생활지도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오하라 겐지로 2000, 227). 따라서 이런 신경증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증상, 본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약물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섭식장애 등은 독서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의 대부분은 사회 속에서의 관계 형성에서 나타난다기보다는 개인적 성격에 의하여 일어난다거나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말하자면 단독관계에 의한 분류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물질관련 장애, 신경증, 생리장해는 관계에 의하여 분류되는 다른 분류지들 예를 들면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등과 동위의 분류지로 설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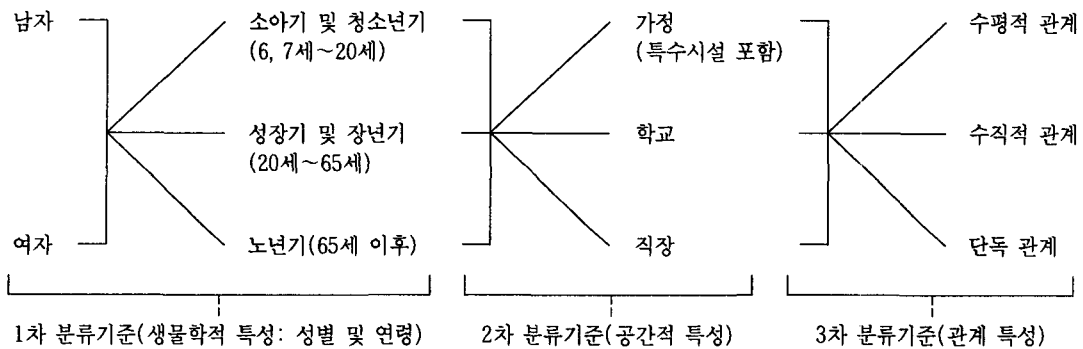
#### 4. 상황의 분류체계와 분류지의 전개

상황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생물학적인 특성을 적용하면 성별의 경우 여자와 남자라는 분류지가 생기고, 이것을 다시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소아기 및 청소년기, 성장기 및 장년기, 노년기라는 분류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긴 6개의 분류지는 다시 각각 공간을 기준으로 하여 가정, 학교, 직장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가정과 같은 의미로 특수시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년기의 고아원, 노년기의 양노원 등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공간에서 생기는 인간관계는

연령과 발달과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기므로 18 내지 24개 내외의 분류지가 생길 수 있다. 이들은 다시 각각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성격을 기준으로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의 관계로 분류되며, 장소의 성격에 따라 분류지의 개수와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수직관계는 부자 관계이고 수평관계는 부부관계 및 형제 관계가 되겠지만 직장에서의 그것은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될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단독관계)을 기준으로 생기는 분류지는 물질관련 장애, 신경증성 장애, 생리 장애이다(3.3 참고). 이상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관계에 의하여 생기는 각각의 분류지에서 생기는 항목들은 나타나는 현상에 의하여 기술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분류하기 위한 어떤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개념의 특성이 적용되는

범주의 외연을 늘어놓으면 된다. 이들은 기존의 독서치료용 도서목록이나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2.3 참고), 혹은 정신분석의사나 심리상담가들이 저술한 저서 또는 아동학대 사례를 보고한 책들<sup>13)</sup>에 나타난 각종 사례들을 검토하여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아기의 남자아이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수직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이나 부딪힐 수 있는 현상들을 개념의 외연에서 표현 가능한 명사 또는 명사구로 표현하여 나열하는 것이다. 즉 이혼한 부모와 아이, 편모나 편부 슬하의 아이, 재혼한 부모와 아이, 부모가 없는 경우, 폭력적인 부모와 학대받는 아이, 몹시 가난한 부모와 아이, 신체장애부모와 아이, 알콜중독증의 부모와 아이 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맞는 책들의 목록을 작성하면 상황별 도서목록이 되는 것이다.



<그림 1>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분류 체계도

13)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M. 스캇 펙지움 신승철, 이종만 옮김(1991), 아직도 가야할 길. 서울: 열음사.  
 지음, 윤종석 옮김(1997), 거짓의 사람들. 서울: 두란노.  
 이호철 (2001), 학대받는 아이들. 서울: 보리.  
 김혜련 (1999), 학교종이 멍멍멍. 서울: 미래 M&B.

## 5. 결론 및 제언

도서관현장에서 독서치료를 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도구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이다. 그러나 기존의 독서치료용 독서목록은 독서치료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현상만을 중심으로 하여 기준 없이 만들어졌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독서목록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독서치료 대상자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과 분류체계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즉 독서치료에 쓰일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 작업으로 1) 독서치료 대상자들을 분석하기 위한 요인을 밝히고, 2)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의 공통점과 특성을 밝히고, 3) 독서치료 대상자가 앓는 마음의 병이나 상처의 증상과 유형을 밝히고, 4) 이들 요소를 정리하여 독서치료를 위한 서지작성의 기초 자료가 될 상황에 대한 분류기준과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문헌연구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독서치료 대상자를 분석하고 그의 상황을 분류하기 위한 1차적 기준은 생물학적 요소로서의 성별과 연령이다. 성별과 연령을 묶어 적용하되 성별을 우선으로 하며, 연령에 따른 발달단계 과업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소년기 및 청소년기, 성년기 및 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진다(3.1 참고).

(2) 2차적인 기준은 독서치료자가 속한 공

간이다. 공간은 사회조직 집단을 근거로 분류된다. 가정(고아원, 양노원 등의 특수시설), 학교, 직장으로 분류한다(3.2 참고).

(3) 3차적인 기준은 공간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는 위의 공간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을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분류하며,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대 사회적 단독관계에 의한 독자적인 증상은 물질관련장애, 신경증적 증상, 생리장애로 나눈다(3.3 참고).

(4) 관계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하위 분류지는 기존의 독서치료용 독서목록이나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검토하여 상위 분류지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또는 이들개념이 적용되는 범주의 외연을 상황으로 설정한다.

(5) 이상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각 계층별 분류지들은 도서관종별로 혹은 상황별 독서목록의 작성범위나 규모에 따라 정조를 조정하여 상황별 독서목록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치료를 위한 상황별 독서목록의 기초적 요건으로서 상황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후속작업으로서 상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서지작업화시켜야 할 것이고, 각급 도서관에서는 이 서지에 따라 도서관 형편에 적합한 적정 장서를 구축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봉사방법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경희. 1986.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정근. 2002. “또 하나의 장을 열면서”. 책은 치유하는 힘이 있는가,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 i-iv.
- 김지혁.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원인과 퇴치』. 서울: 가림출판사.
- 김현희. 2001. “독서치료란 무엇인가”. 독서치료의 가능성 탐색,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제3차 학술세미나』: 15-50.
- 김형경. 2001.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1, 2권』. 서울: 문이당.
- 김혜련. 1999. 『학교종이 땡땡땡』. 서울: 미래 M&B.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편. 1998. 『신경정신과학』. 서울: 하나의학사.
- 미실다인, W. 휴 지움, 이종범, 이석규 옮김. 1995. 『원만한 정서생활을 가로막는 몸에 밴 어린시절』. 서울: 가톨릭교리신학원.
- 바르데츠키, 베르벨 지움, 장현숙 옮김. 2002. 『따귀맞은 영혼』. 서울: 궁리.
- 송영임. 2003. 『정신보건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 연구 - 독서치료의 적용과 관련하여 -』.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슈바르처, 알리스 지움, 김재희 옮김. 『아주 작은 차이』. 서울: 이프.
- 오하라 겐지로 저, 이유정 역. 2000. 『마음의 병, 그 정신병리』. 서울: 태동출판사.
- 유혜숙. 1998. 『노인의 우울증 해소를 위한 독서요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윤정옥. 1998. “독서요법의 이론과 적용”. 『도서관』, 53(1): 47-64.
- 이영애. 2000. 『책읽기를 통한 치유』. 서울: 홍성사.
- 이호철. 2001. 『학대받는 아이들』. 서울: 보리.
- 조선일보 2002.12.26. A31쪽
- 팩, M. 스캇 지움, 신승철, 이종만 옮김. 1991. 『아직도 가야할 길』. 서울: 열음사.
- \_\_\_\_\_ 지움, 윤종석 옮김. 1997. 『거짓의 사람들』. 서울: 두란노.
- 한윤옥. 1989. 『아동문학도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에서 대출된 도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한윤옥 외. 1999. 『국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서지정보 시스템상의 상황별독서 목록 -아동 청소년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효원. 2002. 가을(56호). 김영민 인터뷰기사 “김영민, 그 오래된 삶과 얇은 무늬를 찾아서”. 106-124.
- Coleman, Marilyn and Ganong, Lawrence H., 1988, *Bibliotherapy with stepchildren*.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 Doll, Beth and Doll, Carol,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 Englewood : Libraries Unlimited.
- Joshua, Janice M and DiMenna, Donna, 2000, *Read two books and let's talk next week - Using biblio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John Wiley & Sons.
- Moody, Mildred T. and Limper, Hilda K., 1971, *Bibliotherapy - Methods and materials*.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Pardeck, John T. and Pardeck, Jean A., 1993, *Bibliotherapy - A clinical approach for helping children*, Switzerland : Gordon and Breach Science.
- Pardeck, John T., 1993, *Using bibliotherapy in clinical practice - A guide to self-help books*. Westport : Greenwood.
- Pardeck, John T., 1998, *Using books in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 A guide to bibliotherapy*. New York : Haworth.